

Economy Brief

루저의 반란이 시작되나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연초부터 지속되던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임

소외받던 유로존 주가, 금 및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의 주된 요인은 유가 급락

3분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가시화가 에브리씽 랠리카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루저(다우지수, 유로존 주요국 주가, 금 및 비트코인)의 동반 반등 움직임

연초부터 지속되던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이다. 5월말 이후 나스닥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각각 4.2%, 1.6% 하락한 반면에 다우지수는 3.7%의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또한 그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유로존 주요 국가의 주가지수의 반등세도 강화되고 있다. 유로스톡스 지수가 5월말 이후 6% 상승했고 독일 DAX 지수 역시 2.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외받던 주가뿐만 아니라 금 및 비트코인 하락세도 주춤해지는 동시에 반등 신호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때 온스당 4,000달러를 하회했던 금 가격은 4,170달러대 수준을 회복했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일시적으로 6만달러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6만 2천달러대에서 등락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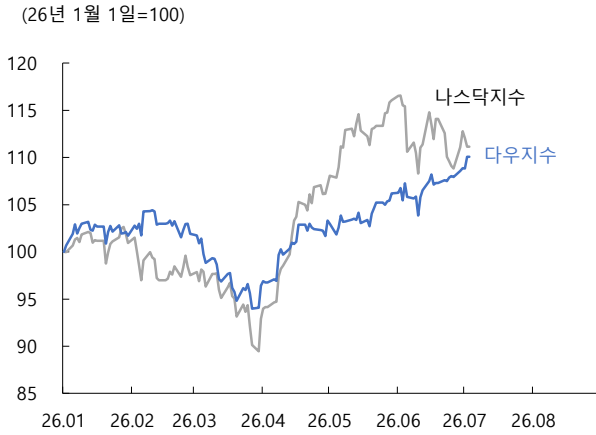
이처럼 소외받던 주가와 자산가격 반등의 중심에는 유가 급락이 있다.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68달러까지 급락했고 브렌트 유가의 경우에는 미국-이란 전쟁 이전 수준을 밑돌기 시작했다. 유가 하락은 당장 인플레이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년동월 2.8%로 5월 3.2%보다 0.4%p 둔화되었다. 유가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물가상승률이 5월을 기점으로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가 압력 둔화 영향으로 유로존 주요국의 국제 금리 역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유로존 경제가 고유가발 스테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벗어나는 분위기이다. 유로존 물가 추이를 고려할 때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5월 정점론이 힘을 받으면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 확산이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OPEC+는 오는 8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 8천배럴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8월 증산규모는 6월, 7월 증산 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OPEC+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지속해 증산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증산 규모는 94만배럴에 이른다. 유가 급락 속에서 OPEC+ 증산 소식은 유가의 추가 하락압력 요인이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도 아니고 미국-이란간 핵협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유가의 추가 하락을 속단하기는 이른다. 그럼에도 OPEC+의 증산은 공급과잉 우려를 자극하면서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에 기여할 공산이 높다. 당사가 3분기 전망에서 강조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을 가시화시켜 줄 긍정적 재료이다.

3분기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면서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도 중단될 것이다. 즉 이번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단발성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미 연준 역시 추가 지표표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유가의 가파른 하락세는 미국내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그동안 루저로 소외받던 주가와 자산가격의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소위 에브리씽 랠리카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1. 6월부터 엇갈리고 있는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유로존 주요국 주가가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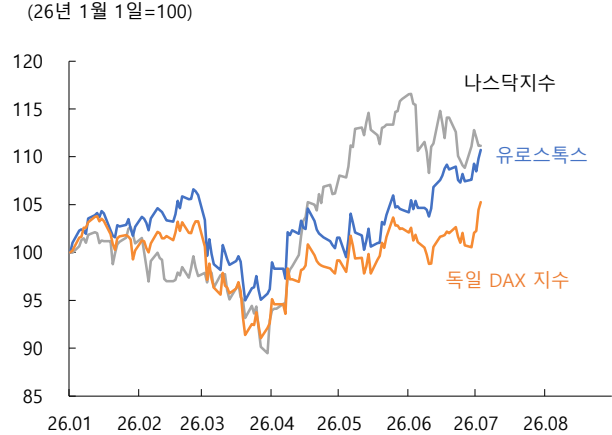


그림3. 금 및 비트코인 가격도 미약하지만 반등 시그널이 가시화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미국-이란간 전쟁 이전 수준보다 낮아진 브렌트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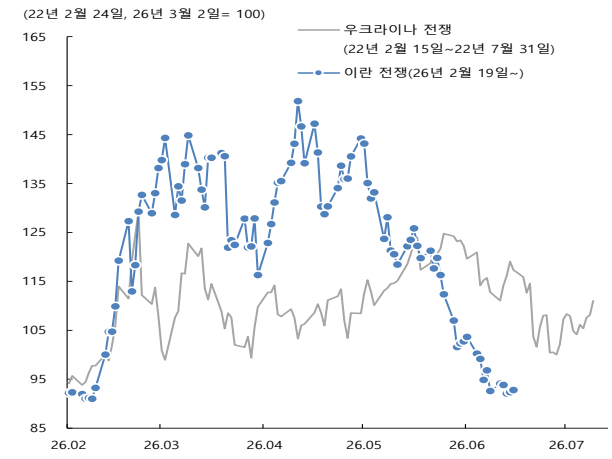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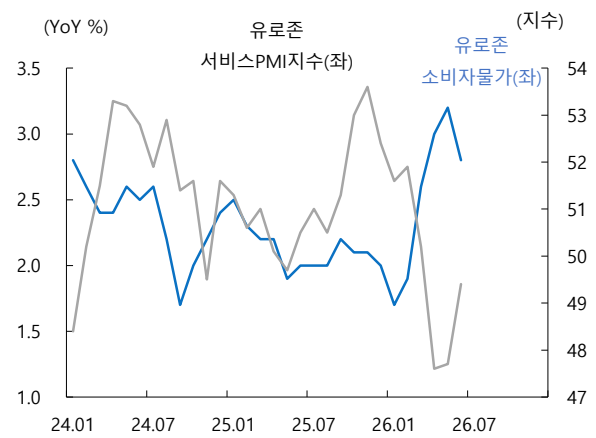


그림5. 유가 하락으로 6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서비스업황은 반등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유가 추가 하락시 미국 국채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듯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